이주일의 책

Culture 문화

전주 28가지 이야기 풀어내다

■ 김창주 '전주미학-지역 역사문화지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전주미학-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 용한 스토리텔링(지은이 김창주 전주 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이, 출판 신아 출판사)'은 전주의 28가지 이야기를 풀 어 냈고, 이와 관련 지역 역사문화자 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제시했다.

1장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이율 배반적 사건, 기인의 행적, 치열한 삶, 숭고한 인간의 정신, 욕망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2장은 전주·안동의 역 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다. 후대가 이어가야 할 이야기를 문화콘 텐츠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캐릭터로 만들 때, 창작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의 인 물이지만, 현재의 미적 감각을 투영한 다. 이야기(story)를 말하는 일(telling) 은 화자의 주관성이 적극적으로 개입 할 때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확보



할 수 있다. 2~4장은 바로 이 telling에 대해 서술했다. 4장 동문예술거리의 산책과 술책은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이

전주미학

전주와 완주에서 역사 속 문화와 풍류 만난다

■ 신정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전주·완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전주·완 주(지은이 신정일, 출판 가지)'는 그야말 로 전주·완주로 떠나는 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 인문학서다. 오랜 역사와 전 통 속에 문화와 풍류가 흐르고 그 어느 지역보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도시가 전 주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조상

이 살았다고 해서 객사의 이름조차 풍패 지관(豊沛之館)이라고 붙인 전주는 동학 농민군이 무혈입성을 한 뒤 전주화약을 맺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전라북 도의 한복판에서 전주시를 감싸 안고 있 는 완주군은 전주와 한몸처럼 역사와 자 연을 공유하고 이름난 산과 절이 유독

많다. 100여 권의 책 을 집필하는 동안 인생의 희망과 절망 이 그물코처럼 촘 촘히 짜여 있는 전

주와 완주에 대한 저서를 훗날의 숙제로 남겨놓았던 저자는 이 책에서 도시의 시 간 속에 아로새겨진 자신의 이야기를 시 처럼 자연스럽게 엮어냈다. /이종근 기자

문화재단, 지역문화 발전인가? 지역정치 강화인가?

■ 김혁수 '문화재단'

'문화재단(지은이 김혁수, 출판 커뮤니 케이션북스)'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지은이가 다년간 문화재 단 경영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분석하 고 운영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해결 방 안을 제시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정치적 처 신을 두고 방황하고 있다. 지역문화 보 존과 창달에 힘써야 할 문화예술단체가 왜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야 하는가? 예 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함으로써 형식적인 독 립 지위를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 화재단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지

만 현실적으로는 지 방자치단체 산하기 관으로서 독립성·자 율성의 제약을 받는 다. 곧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는다. 문화재단의 건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때 안성맞춤인 책이 나왔다. /이종근 기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 주자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 도올 김용옥 '도올만화대학'

'도올만화대학(지은이 도올 김용옥(역 주), 만화 보현, 출판 통나무)'은 '대학' 전 체의 원문을 보현 작가는 도올 선생의 번역과 해설에 따라, 만화로 쉽게 전달되 게 그려낸다. 또 주희가 사서운동을 통해

신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배경 이야 기를 이 한 권의 만화에 함께 담아낸다.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 동아시아 일천년 을 지배한 주자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대학'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문 장이 들어있는 바로 그 책이다. 작은 배 움이 아닌, 큰 배움이라는 뜻의 '대학'엔

국가 통치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 소양과 정치철학에 관한 총 체적인 세계관이 불

과 1,750여 글자 속에 체계적으로 담겨 /이종근 기자



어둠 속 새의 노래 채록하듯 써 내려간 진심의 이념과 서정

■ 편무석 '나무의 귓속말이 떨어져 새들의 식사가 되었다'

'나무의 귓속말이 떨어져 새들의 식사 가 되었다(지은이 편무석, 출판 걷는사람)' 는 어둠 쪽으로 울려 퍼진 새의 노래를 채 록하듯 써 내려간 진심의 이념과 서정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충남 태안에서 농사 를 지으며 흙빛문학, 작가마루'를 통해 작 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 시집이다. 청 년 시절 꿈 많은 국문학도였던 시인은 한

동안 시를 떠나 외면하듯 살았다. 녹록지 않은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외지를 떠돌 다가 고향에 돌아왔고, 땅에 온전히 뿌리 내린 후 다시 펜을 들었다. 그렇게 10년간 땀방울을 훔치며 쓴 쉰아홉 편의 시가 이 번 시집에 묶였다. 오랜 노동과 사유의 결 과로 영글어진 편무석 시편들의 본령은 깊디깊은 서정(抒情)을 향해 있으며, 시인



으로서 농부로서 인 류의 공존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절제 된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하여 편무 석의 시는 "민중으 로 살아, 내내 살붙 이를 건사하다가 고

스란히 자연으로 돌아간 이들에 바치는 찬가(讚歌)다. /이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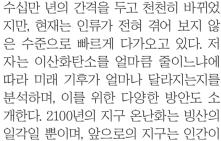
5억 년 지구 과거-현재 들여다보며 미래 기후 변화 밝혀낸다

■ 데이비드 아처 '얼음에 남은 지문'

'얼음에 남은 지문(지은이 데이비드 아 처, 옮긴이 좌용주, 이용준, 출판 성림원 북스)'은 근시안적인 지구 온난화 예측을 진단한다. 언론과 학계에서 주목한 이 책 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며, 지질학 적 측면에서 기후가 어떠한 주기로 변화 했고 현재의 온난화가 얼마나 이례적이 며 미래에는 어떠한 기후 변화가 닥칠지

를 밝혀낸다. 지구 기후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기후 문제 에 대한 폭넓은 시 각을 제공한다. 지 구에는 먼 옛날부

터 온난기와 빙하기가 주기를 띠며 반복 됐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구 환경이 최대



살기에 더욱 척박해질 수 있다.

얼음에 남은 지문

SON MARCH

지만, 현재는 인류가 전혀 겪어 보지 않 은 수준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저 자는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줄이느냐에 따라 미래 기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소 개한다. 2100년의 지구 온난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앞으로의 지구는 인간이

/이종근 기자

세상을 반영하지 않은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다

■ 오동진 '당신은 영화를 믿지 않겠지만'

'당신은 영화를 믿지 않겠지만(지은이 오동진, 출판 썰물과밀물)'은 세상을 반 영하지 않은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어느 장르를 불문하고 사회 상황과 문

제를 간과한 영화는 없다는 의미로, 정 치를 제거한 영화라도 역설적으로 생각 하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감독이 현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역사를 타고 올라가다가 과거



/이종근 기자

금요수필 /제자 이승연

감춘

조윤수



선암사 담장의 고매(古梅) 가지 끝에서는 봄 향기가 터 지고 있었다. 세찬 꽃샘바람 이 순천만 갈대 사이를 휘돌 아 나와 매화 가지에 닿으면 땅 밑에서부터 춘정이 꿈틀댄 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시절이 아주 수상해도 자연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저절로 오고 있는

봄을 미리 내려가 마중하는 성급한 심사를 누가 막을 것인가:'정좌하여 차를 반쯤 마시니 향기는 그대로인데 묘한 작용 일어나며, 물은 절로 흐르고 꽃은 홀로 피네.' 추사 김정희의 다시(茶詩)가 떠오 른다. 홀로 마시는 차를 왜 신(神)격으로 비유했는 지 알만하다.

봄맞이하려 온 천지를 헤매다 돌아오니 뜰 한편 에 매화가 피었더라는 옛사람 되어, 봄내음 찻잔에 담고 나 또한 홀로 정좌하여 차를 반쯤 마시자니 묘한 감흥이 일렁인다. 얼굴을 들고 보니 매화 꽃 병에서 달보드레한 향기가 차 맛을 돋우어 차 맛 인지 매화 맛인지 아릿하기만 하다. 매화는 오래된 가지의 것일수록 그 꽃이 맑고 고아하다. 향기를 풍기고 있는 매화에게 부끄러워 주변을 맑힌다. 꽃 가지 뒤로 둥근 거울을 세워두니 거울에 비친 꽃 그림자는 달빛 어린 창가에 드리운 매화 가지를 연상케 하는 흥겨움을 준다.

사군자 중의 매화를 벗에 비유하여 봄에 피는 매화를 고우(故友),오랜 벗), 섣달에 피는 매화를 기우(奇友), 진기한 벗이라 하였다. 겨우내 기우 같 은 벗님께서는 악양 매화 밭의 꽃가지를 꺾어 부처 님께 헌화한 후 그 꽃을 따서 매화차를 나누어 주

시니 찬 겨울만은 아니었다. 오랜 벗과 함께한 겨 울이 훈훈했다. 탱글탱글한 꽃봉오리가 따뜻한 기 운을 만나니 한 잎 한 잎, 망울을 터트린다. 매화 가지에서 풍겨오는 달착지근한 향기에 젖어 있자 니, 옛 선비들의 매화 사랑이 가슴속에서 골을 이 룬다. 퇴계 선생은 얼마나 매화를 사랑하였으면 평 생 동안 107수에 달하는 매화 시(詩)를 지었고, 91 수의 매화 시를 엮은 〈〈매화시첩梅花詩帖〉〉이란 시집까지 냈을까. 그런 퇴계가 매화보다 맑고 매화 보다 향기로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심하 였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정이 넘치는 퇴계였으 니 명기(名妓) 두향과의 사랑은 애틋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인을 보듯 매화 사랑은 더욱 깊었을지 모를 일이다. 매화 피는 봄날 아직 바람은 찬데, 단 양 호숫가 언덕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며 달뜨기를 기다렸으리라.

'뜨락을 거닐자니 달이 사람을 따라오고 매화 언저리를 몇 차례나 돌았던고 밤 깊도록 오래 앉 아 일어나기를 잊었더니 옷깃에 향내 머물고 그림 자는 몸에 가득해라.'

그런 시구를 짓지는 못하여도 그 마음처럼 나 또한 매화 주변을 몇 번이나 맴돌고 찻잔을 들었 다 놓았다 하는고…. 그의 〈감춘(感春)〉이란 시를 보면 그보다 더 화려한 고향의 봄을 어디에서 느 낄 수가 있겠는가 싶다.

- 조윤수 작가는

2003년 '수필과비평' 등단, 수필과비평작가회의, 한 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수필자문위원 저서: '치앙마이 한 달 살이', '혼놀, 혼자 즐기다', ' 발길을 붙드는 백제탑이여!', '나의 차마고도(茶馬 孤道)'-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선정 외 수필

집 3권 수상: 2020 새전북신문 문학상 공모 대상, 제6회 목포문학상 수필부문 본상, 제3회 행촌수필문학상 외 다수

부재하는 아픔을 견인하는 삶 감각적 언어로 표현

■ 이명숙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지은이 이명숙, 발행 문학 들)'는 시인의 세 번째 시조집으로'너', '그대', '당신' 등의 시적 대상과 '나' 사이의 기억 그리고 현실에 대한 성찰 을 68수의 시조로 담았다. '한물간 사랑에도 밑불은 남 았을까/마른천둥 치듯이 짱짱하게 울었다/아닌 척/널 중심으로/피었다가/여의는…"('해바라기')

"아닌 척/널 중심으로" 피었다 지는 '해바라기'에서 '널'은 사랑의 대상이자 해바라기 '자신'이기도 하다. 이



시가 이번 시집의 첫 번째 시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나'이자 '당신' 인 해바라기의 이중성은 곧 이번 시집이 부재하는 '당신'과 현존하 는 '나' 사이의 노래라는 점을 암시 한다."이 하루 조롱하며 마침 불어 온 바람 나를 겨냥한 듯이/슬쩍 민 것뿐인데/이생이 살얼음인 걸 또

까먹어 피멍 든"('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부분)

/이종근 기자

천천히 스미듯 함께한 인도 인문 여행 에세이

■ 하진희 '무심히 인도'

'무심히 인도-언젠가 꼭한번(지 은이 하진희, 출판 책읽는고양이)' 는 한 인도미술사학자가 천천히 스 미듯 함께한 인도 인문 여행 에세 이다. 인도로 떠나 영감을 받았던 비틀즈,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인

도로 떠났던 수많은 서구권 사람들. 스티브 잡스 또한 갭이어 장소로 인도를 택할 정도로 동경했던 인도의 정 신은 무엇이었을까.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1974 년 인도를 방문했던 스티브 잡스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 다. "인도에 갔을 때보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커다란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 리와 달리 지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직관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관력은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직관에 는 대단히 강력한 힘이 있으며 지력보다 더 큰 힘을 발 휘합니다"

잡스가 애플로 복귀하면서 'Think Different(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때에도 이 캠페 인에 어울리는 인물로 '간디'를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지은이는 인도 국립 비스바바라티대학에서 미술사학 석·박사를 취득한 인도미술사학자가 30여 년 간 매년 한 번 이상 인도를 드나들며 자연스레 접한 인도의 문 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이종근 기자

이 행성의 운명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 '행성 세트'

'행성 세트(1.2권, 지은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옮긴이 전미연, 출판 열린책들)'는 행성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 전이 시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던 2020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이 작품에는 그 영 향이 짙게 깔려 있으며, 베르베르의 전작들에 비해 디 스토피아 성격이 강하다. 같은 해 봄 발표한 초단편소 설 '호모 콘피누스'에서 지하에 격리된 신인류를 묘사했

던 베르베르는 『행성』에서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고층 빌딩에 숨어 사는 신인류를 등장시킨다. 전쟁과 테러, 감염병 때문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들고 황폐해진 세계. 시스

템이 마비된 도시는 쓰레기와 쥐들로 뒤덮였다. 주인공 고양이 바스테트는 쥐들이 없는 세상을 찾아 '마지막 희망'호를 타고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신세계로 향한 /이종근 기자

문명전환의 세계 감각과 문학

■ 창작과비평 여름호

'창작과비평(창작과비평) 2022년 여름호(196호)가 나 왔다. 지난 5년간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열망과 의지가 분출되며 촛불혁명을 추동해왔다. 2년여간의 팬데믹 사 태에서 드러난 높은 시민의식은 촛불혁명이 가져다준 각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역대 최소 득표차 로 촛불정부 2기 구성에 실패한 지금, 촛불혁명은 여전 히 진행 중인가. 본지 편집위원이자 문학평론가 강경석

은 민주사회의 현실정치가 단지 한 명의 대표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 은 다수의 대리자에 의한 것임을 짚으며,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정치

교체의 여망을 반영하고 다양화된 정치적 의사의 대표성을 재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새로운 '다수'를 조직하 는 촛불연합의 재구성"('책머리에')이 요구되는 까닭이 다. /이종근 기자



STAT NARD